

서울명동로타리클럽, 패밀리투게더 회원증강 동참

- 10월 11일(수) 12:30 서울클럽



서울명동로타리클럽(회장 김병직)의 총재공식방문이 지난 10월 11일(수) 서울클럽 트리오2 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동 총재님과 이세진 4지역 대표, 그리고 회원 8분이 참석하였습니다.

12명의 작은 모임이지만 가족 같은 끈끈한 정으로 나름대로 회원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재님과 지역대표님의 방문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김병직 회장님의 환영사와 담소와 웃음이 넘치는 식사를 마치고 이순동 총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650지구의 신로타리를 시대를 만들고자 '패밀리 투게더'라는 표어로 로타리 멤버를 가족으로 확대하여 Rotary membership을 전통, 계승을 하고자 한다면 로타리의 핵심인 재단기부, 봉사, 회원증강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여 활발하고 역동적인 클럽으로 더욱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한다는 총재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총재님의 성금에 자주 클럽을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서울새신라로타리클럽, 총재연설에 재도약 의지 다짐

- 10월 12일(목) 07:30 서울 파르나스호텔 그랜드키친



서울새신라RC(회장 이관제)의 총재공식방문이 지난 10월 12일(목) 오전 7시30분 서울 파르나스호텔 그랜드키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주회 시작전 이순동 총재와 이관제 회장, 한규선 총무, 클럽임원들과 클럽협의회를 통해 센트럴목표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19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총재방문을 환영하고 이순동 총재의 열정적인 연설에 회원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신입회원 입회식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총재공식방문주회가 되었습니다.



서울문화로타리클럽, 지구 모범클럽으로서 목표 초과달성 당부

- 10월 12일(목) 오후7시, 퍼시픽호텔

서울문화로타리 총재공식방문주회가 10월 12일(목) 오후 7시에 퍼시픽호텔 1층, 미라보 별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순동 총재, 이종원 지구트레이너, 김중 10지역대표, 김민태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게스트 등 26명이 참석하였다.

주회 시작 30분전에 클럽협의회에서 클럽 회장 및 6대 위원장들이 클럽현황과 위원회별로 금회기 목표, 계획 및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고했으며, 이순동 총재는 클럽 위원회 중심으로 원활하게 운영하는 모범클럽으로서 솔선수범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식방문주회에서 김민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구중흥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동 총재에 대한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했고 서울문화로타리클럽도 Family Together를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순동 총재는 총재연설에서 금회기 국제로타리의 테마와 운영방침과 지구의 목표 및 운영방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특히 Family Together 방식의 회원증강은 로타리를 사랑하는 리더 그룹의

Passion of Rotary 정신이라며 Pride of 3650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순동 총재는 클럽회장에 게 금일봉을 전달했고 클럽에서도 꽃다발과 선물 및 클럽배너를 이순동 총재에게 드렸다. 이어서 신입회원 2명의 입회식이 있었으며 에베레스트 위성클럽 회장 및 총무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있었다.

김중 10지역 대표의 건배제의에 이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했으며 게스트로 참여한 신입회원 후보들의 자기소개 시간도 가졌고 단체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의미 있고 성공적인 총재공식방문주회를 마쳤다.



3650지구의 모범이 되는 서울관훈로타리클럽

- 10월 17일(화) 07:30 그랜드앰배서더호텔



서울관훈로타리클럽(회장 윤영석)은 10월 17일(화) 아침 7시 30분 그랜드 앰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총재 공식 방문 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 3650지구 이순동 총재, 박윤희 사무부총장, 정휘재 회원증강위원장이 클럽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지역 대표인 클럽 이시훈 회원님께서도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주신 세 분과 클럽 이사님 5분을 모시고 주회 전 클럽협의회가 진행되었으며, 클럽의 모든 현황과 실적, 다양한 방면의 봉사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후 시작된 주회에 참석하신 35명의 회원님께서 총재님과 두 분 내빈을 열렬히 환영해 주셨고, 조찬을 드시며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이어진 연설에서 총재님께서서는 지구 사업과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공식 방문 주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서울신용산로타리클럽, 가족과 함께 하는 볼런티어 활동 강조

- 10월 18일(수) 18:30 the-K 서울호텔



서울신용산로타리클럽(회장 정지웅)은 지난 10월 18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the-K 서울호텔에서 동곡 이순동 총재 공식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서울신용산로타리클럽은 회원증강을 위한 방안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 중 특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 초아의 봉사 이념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이순동 총재는 연설을 통해 회원증강을 위해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 클럽에 가입하도록 권하기 바라며, 지구에서 운영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볼런티어 활동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순동 총재께서는 특별 성금을 클럽에 내주셨고 앞으로 자주 클럽을 방문할 것을 약속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공식방문 행사를 마쳤다.



서울북악로타리클럽, 회원증강 세계 1위의 영광 재현 기대

- 10월 17일(화) 12:00 서울클럽 지리산룸

서울북악로타리클럽(회장 김범생)은 지난 10월 17일(화) 오후 12:00 서울클럽 지리산룸에서 동곡 이순동 총재와 이세진 4지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재공식방문 주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순동 총재께서는故신대진 전총재님을 배출하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오랫동안 지구와 클럽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서울북악 로타리클럽을 공식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며, 회우님들 이름 한분 한분을 말씀해주셨다.

또한 한국로타리 설립 90주년을 맞는 금회기에 가족과 함께 봉사하고 활동하는 'Family Together'를 강조하셨다. 나 홀로 로타리안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하는 로타리안 모임으로 봉사도 가족과 함께함으로 부인, 배우자, 자녀들의 로타리 활동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특히 자녀들의 로타리클럽 가입은, 자랑스럽게 삶을 살아온 우리의 가치있는 Life Style을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 말씀 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클럽이 창립 1995-96년 캘거리에서 세계 1위 수상한 클럽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여 주시기를 바라신다고 하시며, 회우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연설로 깊은 감명을 주신 총재공식방문 주회였다.



한성로타리클럽, PHF 50,000달러 기부 약정, 100명 이상 클럽 유지 목표 - 10월 19일(목) 오후 6시, 프레지던트호텔

한성로타리클럽(회장 손미선)의 총재공식방문이 10월 19일(목)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순동 총재를 비롯, 장충식 전총재, 팽재유 전총재, 소재선 5지역 대표, 최진욱 사무총장님, 정휘재 회원증강위원장, 강봉섭 지구표창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순동 총재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한성로타리는 PHF를 30구좌 약정하였는데 장충식 전 총재님께서 30구좌를 넘어 50구좌를 목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회원들께 말씀하셔서 많은 회원님들께서 PHF를 약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순동 총재님 방문을 환영하는 축하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정연 무용가의 현대무용을 시작으로, 권명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과 정주희 소프라노와 이장원 테너의 독창 및 중창, 그리고 최소빈 발레리나의 발레공연, 변정은 피아니스트의 축하 연주까지 다채롭고 멋진 총재공식방문 환영 축하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옥수로타리클럽은 ‘패밀리 투게더’를 잘 실천하고 있는 클럽

- 10월 30일(월) 18:30 한우리 본점



서울옥수로타리클럽(회장 류인득) 총재공식방문이 지난 10월 30일(월) 논현동에 위치한 한우리 본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동곡 이순동 총재와 5지역 소재선대표를 비롯하여 옥수RC의 회원 및 여러 게스트가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재공식방문 행사가 진행되기 전, 클럽의 임원과 총재단이 함께 옥수로타리 클럽의 현 주소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관한 총연 등을 나누는 클럽협의회 진행되었습니다.

주회 중 이순동 총재는 연설을 통해 옥수클럽은 규모는 작으나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지구의 금회기 슬로건인 “Family Together”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클럽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회원의 증강 및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모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옥수RC는 이날 신입 회원 입회식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신입회원으로 강경아 명창이 입회하였으며, 이날 행사에서 특별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입회를 환영해 주신 회원 및 총재단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서울옥수RC는 앞으로도 “Family Together”라는 지구 슬로건에 맞게 가족회원의 영입을 통한 회원 증강 및 클럽 발전에 힘쓸 것이며, 로타리 정신에 맞는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 할 것이라는 다짐 하에 총재공식방문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울신문안로타리클럽과 서울새한빛로타리클럽, 합동 총재 공식방문 개최 - 11월 1일(수) 밀레니엄힐튼호텔



지난 11월 1일(수) 오전 7시부터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서울신문안로타리클럽과 서울신문안로타리클럽 스폰서로 금년 3월 16일 창립된 서울새한빛로타리클럽이 합동으로 이순동 총재 공식방문 주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새한빛로타리클럽은 창립 후 이번 총재공식방문주회를 통해 모클럽 회원들과 첫 대면이어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회 전 가진 클럽협의회에서는 兩클럽 현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클럽이 발전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순동 총재님은 금년 지구 핵심 목표인 “Family Together, HappyTogether”에 대해 설명하고 강조했는데 兩클럽 모두 앞으로 “Family Together, HappyTogether”를 클럽 회원증강에 활용하여 가족회원의 영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창립 50주년 맞는 새서울로타리클럽, 창립후원클럽인 서울양정월약로타리클럽과 합동 행사 개최 - 11월 1일(수) 12:00 퍼시픽호텔

새서울RC(회장 이정수)과 서울양정월약RC(회장 민경윤)이 합동으로 개최한 총재공식방문이 11월 1일(수) 정오 12시 명동 퍼시픽호텔 ‘남산’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주회는 새서울 로타리클럽과 스폰서 창립클럽인 서울양정월약로타리클럽의 합동주회로 이순동 총재, 서창우 3지역대표, 서울양정월약 민경윤회장과 회원들, 한국요네야마새서울(위성)클럽의 박재영 위원장과 회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순동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2017~18년 운영목표인 ‘Family Together’의 슬로건에 따라 지금까지의 운영패턴을 바꾸고 가족과 함께하는 로타리안으로 발전, 신로타리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구 전 회원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길 당부하셨습니다.

이순동 총재 연설후 신입회원 입회식에서 이해정 신입회원에게 로타리 뺨지를 직접 달아주시고 격려하셨으며, 회원의 생신축하에도 함께하였습니다. 이순동 총재는 클럽발전을 위한 특별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정수 회장은 총재방문 기념으로 PHF 1,0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